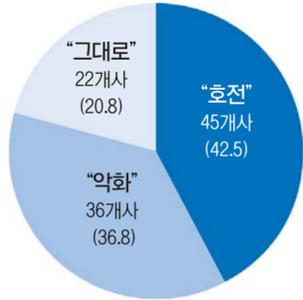


광주 기업 42.5% “내년에는 수출 호전될 것”

광주상의 106개사 조사

가전·의료기기 등 45곳 기대감
철강·화학 업종은 ‘악화’ 전망
“코로나로 피해” 81.1% 달해

■ 지역 기업 내년 상반기 수출 전망 (단위:%)



비율을 차지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될 경우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부진했던 수출 역시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게 광주상의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출부진과 매출감소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수출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기존거래량 감소 및 중단’ (46.8%), ‘상대국의 경기둔화’ (22.6%),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수출감소’ (16.1%) 등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기계·금형’, ‘철강·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품목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해외 원자재 공급의 어려움과 수출국의 경기위축에 따른 주문감소 등 영향을 받아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복수응답)으로는 ‘중국’ (16.0%)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수출감소에 마중 무역전쟁의 영향,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거래 불규칙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신축년 도자기 달력접시 1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 8층 ‘한국도자기’ 매장에서 2021년 소띠해를 맞아 열두 달 달력이 새겨진 ‘신축년(辛丑年) 달력 접시’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코로나19로 지역 수출기업 전체의 81.1%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입지 않은 기업은 18.9%에 불과했다. 피해정도로는 40%이상~60%미만이 24.5%, 20%이상~40%미만 21.7%로 나타났다. 60%이상 피해를 본 기업도 21.7%에 달하는 등 지역 수출기업의 피해정도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는 ‘긴축재정’ (24.6%)과 ‘비대면마케팅 활용’ (20.1%)이라고 응답했으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로는 ‘세금감면 지원책’ (21.9%), ‘수출금융지원’ (20.5%), ‘전시회지원’ (11.4%), ‘통관물류지원’ (10.5%)을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내년 상반기 수출전망이 올해 상반기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이유는 그동안 수출부진에 대한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이라며 “수출제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세금감면과 수출금융지원, 통관물류지원 등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56.82 (-5.38)
↑ 코스닥	931.27 (+1.73)
↓ 금리(국고채 3년)	0.984 (-0.002)
↑ 환율(USD)	1093.30 (+1.50)

금호타이어 산타원정대 초록어린이재단에 후원금

금호타이어는 15일 ‘2020 메리크리스마스 산타원정대’ 활동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17년부터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원정대를 발대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찾아가 직접 포장한 선물과 카드를 작성해 전달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대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측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후원금은 구세군 서울후생원 아동 60명에게 겨울 외투를 비롯한 생계지원 물품으로 구성된 선물키트(Kit)를 구입·전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 금호타이어의 캐릭터 ‘또로’ 미니 인형과 핫팩도 후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올해 4회를 맞이한 금호타이어 산타원정대가 아이들이 뜻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날 ‘금호타이어 이웃사랑 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고,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인근 소외계층 가정에 김치 130상자를 전달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NH농협은행 연말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는 연말까지 금융상품과 농협물을 함께 이용한 고객에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총 경품 규모는 5억6000만원으로, 지난 달부터 이달 31일까지 ‘하나로 다 되는 농협 금융 X 생활 이벤트’를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디지털 수신 상품에 가입하고 농협물 상품 1만원을 구매한 고객 6510명을 추천해 총 2억1000만원 상당을 농협물 포인트로 준다. 간편 통합인증서비스 ‘NH핀패스’를 통해 농협물에 가입한 선착순 2만명에는 농협물 할인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농협물 상품을 NH포인트로 구입하면 사용 포인트(1인당 최대 3만원)의 2배를 농협물 포인트(선착순 2억원)로 제공한다.

한편 농협은행 전남본부는 지난 14일 이 행사에 응모한 1004번째 전남지역 고객에 500만원 상당 정기예금 증서를 전달했다.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킹과 NH멤버스, 농협물 앱의 이벤트 안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다문화 가구 어디에 사세요?

광주 60% ‘아파트’·전남 55.9% ‘단독주택’ 거주

광주 다문화 5가구 중 3가구는 아파트에 살고, 전남 다문화 가구 절반 이상은 단독주택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호남 다문화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가구는 광주 7347가구·전남 1만4069가구 등 2만1416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다문화 가구의 대부분은 주택에 살고 있었다. 거처가 주택인 비중은 광주 98.3%(7224가구), 전남 97.2%(1만3669가구)였다.

주택 가운데 가장 많은 다문화 가구 거처 유형으로는 광주는 아파트(60.1%), 전남은 단독주택(55.9%)이 꼽혔다.

광주는 전체 다문화 가구 60.1%에 달하는 4415가구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어 단독주택(34.6%·2543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1.7%), 연

립주택(1.5%),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1.1%), 다세대주택(1.0%)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다문화 가구 절반 이상(55.9%)인 7867가구는 단독주택에 거주했다. 아파트(36.5%·5135가구), 주택 이외 거처(2.8%), 연립주택(1.7%),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1.7%), 다세대주택(1.3%)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다문화 가구 35만3803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거처 유형은 아파트(40.1%·14만1843가구)였고, 단독주택(37.7%)이 뒤를 따랐다.

광주 다문화 가구 아파트 거주 비중은 전년 59.0%에서 60.1%로 소폭 올랐다. 전남 아파트 거주도 35.4%에서 36.5%로 증가했다.

한편 전국 대비 다문화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남 4.0%, 광주 2.1%였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의무경찰에 위문품 송중욱(오른쪽) 광주은행장은 지난 14일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교태)을 찾아 의무경찰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10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